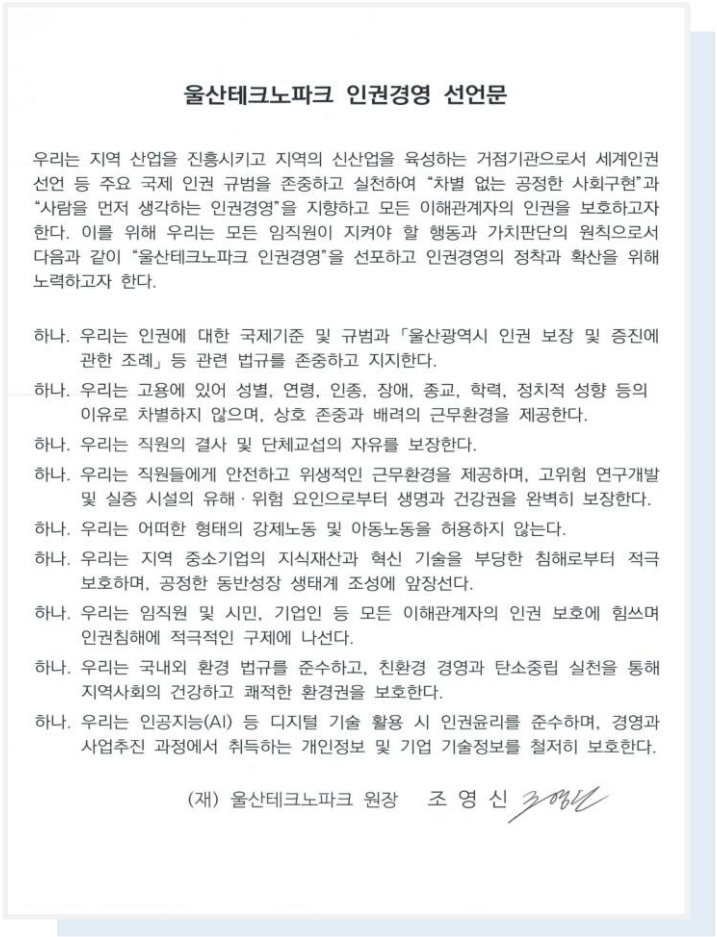
2026년 1월

인권 경영

울산테크노파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,
지속가능한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



울산테크노파크 인권경영 선언문

우리는 지역 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거점기관으로서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 인권 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하여 "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구현"과 "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"을 지향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.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"울산테크노파크 인권경영"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.

하나.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과 「울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 등 관련 법규를 존중하고 지지한다.

하나.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, 연령, 인종, 장애, 종교, 학력, 정치적 성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,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.

하나.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.

하나. 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며, 고위험 연구개발 및 실증 시설의 유해·위험 요인으로부터 생명과 건강권을 완벽히 보장한다.

하나.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.

하나. 우리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과 혁신 기술을 부당한 침해로부터 적극 보호하며, 공정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.

하나. 우리는 임직원 및 시민, 기업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에 힘쓰며 인권침해에 적극적인 구제에 나선다.

하나. 우리는 국내외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, 친환경 경영과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권을 보호한다.

하나. 우리는 인공지능(AI)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시 인권윤리를 준수하며, 경영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 및 기업 기술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.

(재)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조 영 신

인권 경영 선포식,
인권 경영 선언문 개시

1월 2일 인권 경영 선포식을 개최한 후, 홈페이지에 인권 경영 선언문을 개시했습니다.